



#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 숲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이사)

지난 7월 2일 UR농산물협상그룹의 드류의장이 합의 초안이란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농축산업계에 드류라는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

UR협상이 '86. 9월에 시작되었으니까 지난 4년간 잠잠하다가 갑자기 드류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홍보되면서 농협과 축협이 UR드류 의장안을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심포지움, 강연회, 설명회가 잇따르게 되었다.

UR이 아니라도 97년까지 시한부로 가트의 BOP11조국으로 선진국이 되면서 수입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무감각하다가 보조금도 안된다, 가격지지 정책도 안된다, 모든 것은 관세 한가지만으로 국경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UR이 타결되어도 유예기간이 10년은 될 것이니 그간 우리가 잘하면 큰 문제는 없고 몇가지 주요품목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농민단체들은 UR협상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이번 UR협상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적

인 문제이므로 소비자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농림수산부도 국별현황자료(Country list)를 10월 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연기해가며 NTC품목(농업의 비교역적 품목)으로 쌀,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고추, 마늘, 닭고기, 참깨, 보리 등 9개품목을 정하고 10월 16일 축협강당에서 UR협상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공청회는 농림수산부가 NTC 9개품목을 정했는데 이것이 잘 정해졌으며 앞으로 협상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UR타결이후 국내농업정책방향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2개분야로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여 느끼는 것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는 생각이었다. 얼마전까지도 농협이나 축협이 드류 의장안을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었는데, 이날 공청회는 농협의 NTC품목에 콩, 감귤, 옥수수, 담배, 인삼 등의 추가요구로 일관해서 UR 협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드리고 NTC품목에 빠진 몇개품목을 추가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는 회의가 되었다.

대개 이렇게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미 9개품목에 들어 있는 업종은 수세에 서게 되고 빠진 작목들은 공세를 취하게 되어 결론없는 소모전을 농민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게 된다.

어느 것은 국제경쟁력이 있으니 빼고 다른 품목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면 빠지지 않으려고 싸워야 되는 희극이 벌어지게 된다. 9개품목에 들어간 것도 기득권이라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싸우다 보면 UR협상 전체의 흐름을 잊어버리게 된다.

역시 인간은 눈앞의 조그만 이익에는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데 보다. 정략가와 경제가의 차이가 이런데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날 결과는 NTC품목을 결정함에 있어 농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민이 UR협상을 인정하고 NTC품목에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의 중요한 수확은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는데 있었다.

1. 수출국의 논리와 수입국의 논리가 같을 수 없고
2. 농업구조조정이 이미 끝난 나라와 아직 개도국간에 같을 수 없으며
3. 수입개방은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개방하는 것이며
4. 공산품과 농산품은 같은 수입개방 논리로 적용될 수 없으며
5. 한 국가가 독립,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본접근방법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6. 마치 UR협상이 타결되어도 10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은 수입이 안되는 것처럼 홍보되는데 상대국은 유예기간이 아니고 이행기간으로 표현하는데 국민의 오도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7. NTC도 관세를 줄여나가는 TE(관세 상당치)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며
8. 우리도 수세에만 몰릴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황색지대로 정하고 우리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는

“

얼마전까지도 농협이나 축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드주 의장안을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했는데, 10월 16일 열린 UR 공청회에서는 농협이 TNC품목에 콩, 감귤, 옥수수, 담배, 인삼 등의 추가 요구로 일관, UR협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NTC품목에 빠진 몇개 품목을 추가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는 회의가 되고 말았다.

”

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며

9. BOP 18조국을 졸업했다고 하지만 다시 무역수지 적자국이 되었으니 BOP 18조국으로 재수생이 되어야 하며 이는 이미 스페인, 이태리, 브라질 등의 예에서 볼 수 있으며

10. 협상 Table을 보장해야 되는데 대표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이며

11. 결국 UR문제는 국내농정이 소홀한 결과로 내부 문제이므로 통치권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협상대응방안으로 활용할지는 궁금한 일이지만, 이날 공청회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